

2023. 8. 18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1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

서울역사편찬원장

이상배

02-413-9558

시사편찬과장

박명호

02-413-9539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<http://history.seoul.go.kr>

서울역사편찬원,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오디오북 기증

- 서울역사편찬원, 〈쉽게 읽는 서울사〉 등 대중교양서 오디오북 제작하여 공공도서관 기증
- 국립장애인도서관, 국회도서관 시작으로 하반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제공 예정
- 시민과 외국인 모두 정보 격차 없이 서울의 역사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

서울역사편찬원(원장 이상배)은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〈쉽게 읽는 서울사〉 등 2천년 서울의 역사를 담아낸 대중교양서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고, 국립장애인 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.

○ 이번 기증으로 서울역사편찬원의 오디오북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‘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*’에 등재됨으로써 장애인 등급을 받은 이용자가 손쉽게 서울역사편찬원의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.

*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(Direct Rapid Easy Accessible Material Service, DREAM)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장애인의 지식격차 해소를 위해 만든 대체자료 모바일 서비스로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비롯해 서울도서관 등 전국 5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지식정보서비스이다.

- 서울역사편찬원이 제작한 오디오북은 편안한 배경음악과 성우의 낭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한 편당 길이는 20~30분 분량이다. 올해 초부터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 중이다.
- 오디오북으로 제작한 《쉽게 읽는 서울사》는 역사학자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159명이 모여 집필하였다. 고대·고려, 조선, 개항기·일제강점기, 현대 등 각 시대별로 20가지의 주제를 담았는데, 제1권 ‘서울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을까?’를 시작으로 제8권 ‘서울, 국제도시로 거듭나다’까지 모두 159가지 주제가 수록되어 있다.
- 서울역사편찬원은 이번 기증을 시작으로 향후 국내 주요 도서관 등에 오디오북 기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. 2023년 하반기 안으로 국립중앙도서관도 서울역사편찬원의 오디오북을 제공할 예정에 있다. 또한 서울문화마당 등 기존 도서를 오디오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, 외국인들에게도 서울 역사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하여 영어 오디오북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.
- 서울역사편찬원의 오디오북을 이용하기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, 유튜브 채널,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(홈페이지),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,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하다.
-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“2,000년 서울 역사는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”면서 “이번 오디오북 기증이 모든 계층이 정보 소외 없이 서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서울역사편찬원 오디오북 이미지 1부. 끝.

(붙임) 오디오북 이미지

서울역사편찬원

오디오북

쉽게 듣는 서울史 고대편

온조와 비류는 왜 서울로 내려왔을까?



서울역사편찬원

서울역사편찬원 오디오북 이미지